

공동체은행 빈고 - 활동가연구모임 (16차)

* 날짜 : 2014.10.28.화.7:30

* 장소 : 빈가게

* 참석자 : 자유(넓은집/까페해방촌), 정민(해적당), 파스(해적당), 곰자(미소속), 오디(구름집), 좌인(미소속), 종민(공룡), 한돌(구름집), 몽애(마실집), 뽕뽕(모두들), 테아(옥상집), 시오(잘자리), 나마스떼(사랑채)

1. 공동체 기금(안)

1. 공동체기금 생성 배경

빈고는 매년 발생한 잉여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잉여금 운영은 빈고가 무엇을 지향하는 은행인지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 보통의 자본기업은 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의 기여도에 따라 배당하지만, 빈고는 공동체은행 빈고를 이루는 모든 주체들에게 고루 분배한다. 출자자를 위한 '출자 지지금', 이용자를 위한 '공동체기금', 빈고 밖 주체들과 연대하기 위한 '지구분담금', 운영활동을 위한 '활동가기금'이 그것. '공동체기금'은 빈고에 모인 출자금을 지혜롭게 이용하고 그 수입을 빈고와 공유한 이용자들에게 분배한 기금이다.

2. 목적

- 공동체 공간이 확장되고 유지되기 위한 활동을 지지하는 데 쓰인다.
- 공동체 회원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상호부조하기 위해 쓰인다.

3. 분배대상

'이용자'는 공동체 공간을 비롯한, 공동체 회원도 그에 해당된다.

4. 집행기준 - 공동체회원

4-1. 상호부조금(혼례)

- 내용 : 조합원 당사자의 혼례를 치르는 경우 집행
- 비용 : 5만원

4-2. 상호부조금(장례)

- 내용 : 조합원 직계가족과 사촌의 장례식을 치르는 경우 집행
- 비용 : 직계가족에게는 5만원, 사촌까지는 3만원

4-2. 공동체회원 활동지원 * 논의 *

- 내용 : 조합원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돕기위해, 의미있는 사회적 활동을 할 때 이를 지지하기 위해 집행
- 비용 : 경우에 따라 집행 금액 협의

5. 집행기준 - 공동체공간

4-1. 공동체 초기 형성

- 내용 : 초기 공동체 공간을 만들 때는 많은 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이를 지지하기 위해 공동체기금을 집행
- 비용 : (현) 공동체별로 초기 공간을 형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 중 자신들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을 제하고, 빈고에게 필요로하는 금액을 제안 > 활동가들이 적절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금액을 설정하고 이를 평균으로 잡아 집행

* 논의 : 비용을 늘리자! (파스)

4-2. 공동체 공간 위기

- 내용 : 재해, 사고 등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공동체 공간이 위기에 처할 경우 이를 돕기 위해 집행
- 비용 : 경우에 따라 집행 금액 협의

* 논의 : 빈마을 장투객 하락으로 공간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집행(파스)

4-3. 공동체 활동 지원 * 논의 *

- 내용 : 공동체 회원들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부모임, 강좌 등에 지원.
- 비용 : 공동체별 연 1회, 5만원

6. 재정현황 및 예측

현재 자산 : 총 2,334,150원

올해 사용 : 총 1,448,550원 (2014년 1-9월)

* 예산집행(안) - 1년 기준

공동체 상호부조 : $12 * 5 = 60$ 만원

공동체회원 활동 : $5 * 6 = 30$ 만원

공동체 공간생성 : $20 * 3 = 60$ 만원

공동체 공간 위기 : $10 * 2 = 20$ 만원

공동체 활동 지원 : $10 * 5 = 50$ 만원

총 220만원

2. 지난 회의록 (주요 의견)

1. 공동체 기금을 전부 소진하는 것과 관련된 우려

- 오디 : 내년에 공동체기금이 올해처럼 적립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건 무리가 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공동체 개인에게도 지원하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2. <공동체 회원 활동> 관련 의견

- 정민 : 개인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개인이 쓰더라도 함께하는 활동을 넓히는 데 쓰이는 데 지원돼야 한다고 본다. 공동체활동이나 개인활동에 100만원 정도 집행되는 게 어떨지. 공동체들이 확장될 때 필요한 금액을 집행할 수도 없을 것 같다는 제안은 어떤 말인지 동의된다. 하지만 빈고 재정 현황이 크게 문제되지 않고, 빈고는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보다는 빈고 조합원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 관심을 더 많이 갖게하기 위해서 돈(힘)을 쓸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공동체활동과 개인활동에 지원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3. <공동체 공간위기> & <공동체 초기형성> 에 더 집중하자

- 파스 : 지구분담금 같은 경우에도 돈만 보내지 말고 활동을 하자는 게 있었다. 공동체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장투금액이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없는데, 공동체 개인의 외부활동에(그것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이라 할지라도) 지원해 주는 데는 동의해 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의견1. 신생 공동체가 확장되는 데 더 많은 돈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자.

의견2. 공동체 장투객들이 줄어들어서 문제가 생길 때 쓰일 수 있도록 하자.

- 정민 : 공동카페에서 적자가 났을 때, 빈가게도 마찬가지고. 적자분을 매꿔줘야하는 의무가 없는 것처럼 빈마을의 장투객 부족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빈집 내에서 알아서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아닌가.

- 나마 : 모인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12%논리가 적은 돈은 아닌거라는 상태에서 빈마을의 운영상에서 불거지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빈고가 이걸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근데 빈고에서 모이는 기금들은 다른 공동체도 지원이 되.

- 오디 : 출자하는 사람(출자지급), 이용하는 사람(공동체기금), 운영하는 사람(활동가기금), 외부 사람(지구분담금) 4주체가 나눠갖는 것. 공동체기금은 결국 이용하는 사람에게 분배하는 거다. 공동체 공간 뿐만 아니라 공동체 회원에게도 분배된 거라고 봐야한다. (즉, 공동체 공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공동체 회원 활동에도 소홀할 수 없다는 의견)

4. <빈고> & <빈집>과 관련된 의견

나마스때 : 현재 빈집과 빈고와의 간극이 벌어진 상태기도 한다. 빈집의 장투가 되면 빈고에 가입이 될 때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태. 따라서 빈고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듯. 그래서 간극이 발생한 게 아닌가. 빈고가 초기에 맡았던 기능들을 마을회의에서 잘 전달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다고 본다.